

18세기 초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인과 서양 선교사의 교류 양상:

[一菴燕記]를 중심으로

조유희 (한국학중앙연구원)

I. 연행과 천주당 방문의 계기

李器之는 1720년 아버지 李頤命을 따라 숙종의 서거를 알리는 告訃使의 일원으로 연행길에 올랐다. 당시 부친 이이명은 사행단의 정사였으며, 이기지는 子弟軍官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이기지의 나이는 서른이었다. 사신 일행은 9월 18일 북경에 도착한다. 1720년의 연행을 바탕으로 기록된 이기지의 [일암연기]는 18세기의 연행록들 가운데 서양인과의 만남이 가장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기지는 북경 도착 시점부터 북경을 떠나는 11월 24일까지 두 달 가량 북경에 머물면서 서양인 선교사들과 교류하게 되며, 그들과의 교류가 반영된 기록이 두 달 가운데 20여 차례에 걸쳐 나타난다. 이기지는 자신보다 앞서 1712년에 연행사절로 왔던 김창업을 통해 연행 이전에 이미 북경에 체류하면서 만나 볼만한 청나라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북경 도착과 함께 왕사를 찾아 북경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한 [일암연기]의 기록으로 보아 안내인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둔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

[일암연기]의 기록을 보면 애초에 이기지가 만나려고 염두에 두었던 서양인 선교사가 따로 있었던 것 같지 않다. 9월 22일자 기록에 이기지는 서양인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천주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錦平尉 朴弼成의 심부름으로 서양 선교사를 만나러 가는 朴泰重을 따라 나선다. 한해 전 錦平尉 朴弼成이 연경에 사신으로 와서 朝參하고 돌아오는 길에 천주당을 방문하여 紀씨 성을 가진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 사람이 박필성 일행의 숙소인 玉河館을 방문하여 吸毒石을 선물한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소식을 주고받았으며 박필성은 이기지와 연행길에 오른 박태중을 통해 선교사 기씨에게 선물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기지는 서양인을 보고 싶은 호기심에 박태중과 동행했던 것이다.²

본고에서는 이기지의 [일암연기]를 바탕으로 18세기 초의 연행에서 비롯된 조선인과 서양인의 만남의 양상을 살펴보게 된다. [일암연기]는 조선후기 연행록들 가운데 천주당의 방문과 서양 선교사와의 만남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기지가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검토하여 18세기 초에 서양 선교사들과 조선인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후대의 연행록 작품들과 견준으로써 일정 정도 그 특징이 드러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교류에 임하는 자세

¹ 이기지는 김창업으로부터 북경 안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왕사를 비롯하여, 북경에서 교류했던 청나라 선비 조화, 양징 등에 대하여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신익철이 이기지의 유고 [일암집]을 통해 구명한 바 있다. (신익철 2005: 173)

² 이기지는 선교사 기씨가 청나라 황제로부터 賓師로 예우 받는다는 점을 특기하고 있다. 서양인에 대한 청국의 특별한 예우 또한 선교사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해 7월에 기씨가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 첫 번째 천주당 방문 때 전혀 생소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된다.

1. 계획되지 않는 만남과 선교사들의 환대

이기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은 채 서양 선교사를 만나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행인 박태중을 따라 천주당을 방문한다. 처음의 우연한 방문이 계기가 되어 이기지는 북경에 체류하는 두 달여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선교사들과의 교유에 할애하게 된다.

9월 22일 선무문 안에 있는 남당을 방문하여 문지기로부터 선교사 기씨가 사망했다는 것을 전해들은 이기지와 박태중은 그 문지기의 도움으로 그곳에 머무는 다른 선교사들을 만나게 된다. 박태중을 우연히 따라 나선 이기지는 서양인 선교사 소림, 장안다, 맥다성을 만난다. 소림은 처음 본 조선의 젊은이 이기지를 정성껏 대하여 이기지에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서양의 기물들을 스스로 없이 보여주었다. 이기지는 선교사의 처소에서 천리경, 깃털을 이용한 서양 펜, 자명종 등을 보게 된다.

9월27일에 있는 2차 천주당 방문에서는 정사 이이명이 서양인들을 초청하자, 그들이 수일 내에 답방하기로 약속하고, 이틀 뒤인 9월 27일 대진현, 소림 등의 인사가 처음으로 이기지 일행의 관소를 방문하게 된다. 사신 일행과 선교사들의 관계는 이처럼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선교사들은 사신 일행에게 吸毒石, 呂松果, 西洋刀, 水晶盒, 서양천주당 그림, 천주교리서 등을 선물로 가져다 주었다. 사신 일행은 밤떡, 海松子떡, 藥果, 鰻魚 등을 桂糖酒와 함께 대접하였으며, 방문객들이 떠날 때 壯紙, 刀子, 文魚, 부채 등을 예물로 전달하였다. 이처럼 조선 사신 일행과 서양인 선교사의 만남은 아주 우호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만남에도 선뜻 응해주는 그 당시 선교사들의 정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기지와 서양 선교사의 계획되지 않은 만남이 선교사들의 환대로까지 연결된 것은 후대의 연행자들이 선교사들에게서 받는 처우를 고려할 때 매우 특별한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기지가 연행한 때로부터 40여년 뒤인 1765년 말에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연행 길에 올라 1766년 초에 북경에 체류한 홍대용의 연행록에 기록된 선교사와의 만남을 두고 보더라도 이기지와 서양 선교사의 교유가 18세기 전체의 맥락에서 매우 특별한 경우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강희 이래 우리나라 사신이 연경에 가서 간혹 천주당에 이르러 보기를 청하면, 서양 사람들은 반드시 흔쾌히 맞이하여 천주당 안의 이상한 그림과 神像 그리고 기기들을 두루 보여 주고 이어서 서양에서 나는 진기한 물품들을 주었다. 그리하여 사신 간 자들이 그 주는 물건을 탐내고 그 이상한 구경을 즐거워하여 해마다 찾아가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풍속은 교만하여 과장하고 간사함을 숭상하여 대우함에 예를 갖추지 않는 일이 많았고 간혹 물품을 받고서도 보답하지 않았다. 또 따라간 무식한 자들이 종종 천주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으며 기물을 함부로 만져 그들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성질을 거스르기도 하였다.

근년 이래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욱 싫어하여, 보여 주기를 청하면 반드시 거절하고 또한 情誼로 대하지도 않는다. 진실로 정성어린 예의를 앞세우지 않으면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에 壯紙 2묶음, 부채 3자루, 먹 3갑, 청심환 3알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서양 사람 유송령과 포우관 두 사람에게 보냈다.

위 인용문은 이기지의 연행 이후 40여년이라는 시간적 간극 속에 세대 또한 변화되어 연행자들의 부정적인 행태가 만연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홍대용의 말처럼 서양 사람들이 “흔쾌히 맞이하여 천주당 안의 이상한 그림과 神像 그리고 기기들을 두루 보여 주고 이어서 서양에서 나는 진기한 물품들을 주” 던 시대는 이기지가 연행한 시기를 전후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예고 없는 방문에도 환대를 받은 이기지의 천주당 방문과 달리, 이제는 조선 사신 일행이 “보여 주기를 청하면 (선교사들이) 반드시 거절하” 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홍대용의 경우도 서양 선교사 유송령과 포우관을 만나 대화라도 해보려면, 그에 앞서 편지와 함께 예물을 갖추어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연행록에 기록된 예물의 내용과 예물을 주고받는 격식 등을 통해 연행하는 사람들과 서양인들 사이에 형성된 우의의 질적인 가치를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행록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연행자들이 서양인 선교사를 대하거나 선교사들이 연행자를 대하는 법식의 개인적인 편차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기지와 그 일행이 서양인을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물건에는 정중함과 자연스러운 禮가 배어 있었다면, 홍대용의 연행록에 나타난 기록에 비추어 보자면, 후대로 오면서 서양인을 만나거나 천주당을 구경하기 위한 대가로서 예물이 지불되는 세태로 시대가 변화되어 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2. 他者の 가치에 대한 열린 자세

이기지 일행은 서양 선교사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와 동시에 그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열고 타자의 가치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기지 일행과 선교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남을 지속하여 서로 친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조선인과 서양인의 만남이 본격화되기 전이라서 상대방을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기지와 그 일행이 서양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으며, 서양인 선교사들 또한 이기지 일행을 그렇게 대하면서 서로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기지는 서양 선교사들과의 첫 만남에서 “나는 천하의 극동에 살고, 그대는 천하의 극서에 사니 이번 만남이 어찌 天緣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그대와 내가 마음이 다르지 않아 뜻이 서로 통하니 어찌 멀고 가까운 거리로서 논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상대에 대하여 매우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사행단의 정사인 부친 이이명에게 선교사들을 소개하고 싶어 선교사들과의 첫 만남에서 선뜻 그들을 관소로 초대하고 싶다는 의향까지 표현한다.

남당의 선교사 소림 일행과 처음 만나면서 이기지는 다양한 기물을 소장하고 있는 천주당의 다채로운 모습에 관심을 보이며 찬탄하고 있다. 특히 조선 사람에게 이념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천주학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된다.

결에 작은 책이 한 권 있었는데, 들춰보니 서양 글자로 되어 있었으며, 작은 종이로 손바닥 만하게 그림을 그려 책 속에 수십 장 끼워 두었다. 내가 한두 장 갖고 싶어하자 소림, 대진현 두 사람이 각각 그 작은 그림을 두세 장씩

건네주었다. 그림 중앙의 작은 비단 조각에는 먹칠이 되어 있지 않아 사람 모양을 마치 음각해서 찍어낸 듯했다. 그런데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을 내게 주려다가 다시 제 자리에 두면서 매우 아까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내가 그 까닭을 물으니,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 모습이라 하면서 그 그림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리저리 주고받으면 좋지 않다고 대답했다. 내가 말하기를 “천주의 가르침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면 이 또한 諸公의 공일 터이니 천주의 형상을 퍼뜨리는데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하니, 세 사람 모두 “그대의 말이 지극히 옳소.” 라 하고는 마침내 주었다.

-이기지 [일암연기] 9월 20일

이기지의 북경 여행은 조선의 여행자들이 서양 선교사들을 접하는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인용문에서와 같이 이기지가 조선에서 “천주의 형상을 퍼뜨리는” 것, 곧 천주교를 조선에 전파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이기지 자신이 적어도 현상을 객관화 시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상황 인식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III. 교유의 구체적인 양상

[일암연기]를 보면 이기지가 남당, 동당, 북당의 세 천주당을 방문하여 서양인 선교사를 만나기도 하고, 반대로 서양인 선교사들이 이기지 측 일행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기지 및 그 일행과 선교사들은 직접 만나는 사이사이에 서로 편지나 예물을 주고받으며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기지 일행이 선교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9월 22일에 시작되어 10월 30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기지 측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천주당을 방문한다. 서양인 선교사들이 이기지 일행의 숙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모두 세 차례이다.

이기지 측의 천주당 방문 (시기,장소,교유 선교사)	선교사 측의 사신 관소 방문 (시기, 교유 선교사)
1차(9월 22일 남당): 소림, 장안다, 맥다성 2차(9월 27일 남당): 소림, 장안다, 맥다성, 대진현 3차(10월 10일 동당): 비은 4차(10월 22일 동당): 소림, 비은 5차(10월 26일 남당): 소림, 대진현, 장안다, 두덕미 6차(10월 28일 북당): 백진, 녀효사, 탕상현, 은홍서 7차(10월 30일 동당): 서무승	1차(9월 29일): 대진현, 소림 2차(10월 20일): 대진현, 비은 3차(10월 24일): 소림, 비은

사신 일행이 북경에 머무는 동안 서신이나 예물이 오고 간 것은 모두 18회이며 그 가운데 7회가 이기지 측에서, 11회가 선교사 측에서 보낸 것이다. 직접 방문 없이 사람을 시켜 예물이나 소식을 주고받는 18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회가 조선 사신이 천주당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인 11월에 이루어져,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고민을 인편을 통한 연락으로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인과의 만남을 기록한 18세기 이후 연행록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고려할 때 이기지와 서양 선교사의 교유는 횡수에 있어서나 우의의 정도에 있어서나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특별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이기지와 선교사들의 교유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 연쇄적으로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1·2차 천주당 방문에서 이기지는 선무문 안에 위치한 남당을 향한다. 이전에 조선 사신들이 묵는 옥하관에서 남당이 가장 가까워 사신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박필성의 부탁을 받아 남당을 방문하는 박태증을 따라 나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기지 일행은 남당의 인사인 소림 및 대진현과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1차 천주당 방문에서 남당의 선교사들과 통성명을 한 이기지는 사신 일행과 함께 2차 방문을 한다. 정사인 이이명은 흙천감 관원 소운룡, 손이무를 통해 선교사들과 필담을 나눈다. 그 뒤에도 줄곧 소림, 대진현과 필담을 통하여 천문, 역법, 천주교리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데, 필담의 성격상 의사소통에 제약을 느끼면서도 그 처럼 만남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이기지 일행은 대체로 만족을 느낀다. 이기지 일행은 선교사들의 방마다 가득한 신기한 물건³들을 두루 관찰함에 있어서 전혀 지치거나 지루해 할 줄을 모른다.

9월에 이루어진 세 차례의 만남에서는 이기지 일행과 남당 선교사의 대화가 심각하거나 진지한 것들을 주제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지는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천주당을 방문하여, 서양 선교사들의 문화와 제도 등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후에 사신 일행이 남당의 선교사들과 대화할 때는 주로 천주학이나 서양화, 서양 역법, 천문학 등에 대하여 그들에게 묻고 새로운 사실을 터득하는 방향으로 만남이 진행되었다.⁴

이기지의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천주당은 동당이였다. 그러나 10월 10일에 동당을 찾아가기 전까지 이기지는 동당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동당이 동안문 밖에 있는 줄 모르고 동안문 안쪽에서만 찾아보았기 때문이다. 이기지는 남당의 소림과 대진현을 통해 동당의 비은에 대하여 알고 10월 10일의 동당 방문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니, 남당 선교사들과의 교유가 동당의 방문에 자연스럽게 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기지는 10월 26일에 남당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된 두덕미를 통해 서화문 밖 천주당, 즉 북당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며, 자명종의 내부를 보여주겠다는 두덕미의 말에 따라 이틀 뒤인 10월 28일 북당을 방문한다. 이와 같이 당초 연행 길에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남당 인사들과의 교유가 당시 북경에 존재했던 나머지 두 천주당 동당, 북당⁵의

³ 이기지는 천주당을 방문하면서 목격한 여러 기물, 제도 등에 대하여 “奇異”, “奇妙” 등으로 감탄을 표출하고 있다. 대부분 이전에 듣거나 보지 못한 것들이라서 구체적인 분석·평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찬탄이 앞섰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⁴ [일암연기]의 기록만으로는 9월에 이루어진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진지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예컨대, 9월 27일 사신 일행이 남당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에 이기지의 부친 이이명이 선교사들과 필담했다는 사실만 언급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기지가 이때의 만남을 기록할 때는 새롭게 구경한 기물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역도 필담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의사소통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초기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9월의 회동에서는 필담 통역이 더욱 익숙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선교사 일행이 사신들의 관소를 첫방문하고 나서 10월 3일 이이명이 남당의 선교사들에게 역법, 혼천의·유리 제조법 등에 대하여 묻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언급이 [일암연기]에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이명의 [소재집]에서 확인된다. ([소재집] 권 11 <燕行雜識> 및 권 19 <與西洋人蘇霖戴進賢> 참조)

⁵ 북경에 가장 먼저 건립된 천주당은 남당으로 1601년 명나라 신종에게 선무문 안의 땅을 하사받은 마테오리치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그 후 1644년 아담 샬이 이를 개축하였다. 남당 다음으로는 1628년 아담 샬이 거처하던 동안문 밖의 동당이 건립되었다. 북당은 파리외방선교회 회원인 폰트니라가 청나라 성조의 확질을 고친 공로로

선교사들과 교류하는 기회로까지 확대되었고, 궁극적으로 이기지의 북경 체험에서 천주당 선교사들과의 교류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동당과 북당의 선교사들과 이기지 사이에 오가는 대화와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당의 선교사들에 비해 이들이 조선 포교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10월 10일 동당의 비은과 만난 자리에서 이기지는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되도록 청나라 황제의 도움을 받고 천주학 관련 서책을 한문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천주학에 대하여 다소의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였다. 이것을 조선 포교의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이기지가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비은은 천주학에 대한 이기지의 관심을 읽었기 때문인지 세계지도를 꺼내 보여 이기지로 하여금 조선의 모습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조선에서 여행하는 경로를 물음으로써 조선에 대한 은근한 관심을 표명하였다.⁶ 동당의 비은은 북당의 백진, 탕상현 등과 함께 조선에 포교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른 선교사들에 비하여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한 인물이었다. 비은은 10월22일 이기지가 동당을 재차 방문하였을 때에도 지도를 꺼내 북경에서 책문까지의 거리를 일일이 따져보고 조선까지 가는 노정을 이기지에게 물었다. [일암연기]에 기록된 이기지와 선교사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비은과 백진은 청나라 목극등이 백두산정계를 확정할 때 함께 백두산까지 동행할 정도로 조선 쪽의 영토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이다.(10월 22일, 10월 28일) 백진은 등래에서 조선까지 해로로 어느 정도 거리인지도 물었다.(10월 28일) 10월 30일에 이기지가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동당에 방문했을 때, 비은은 잠시 남당에 가 있다가 이기지와 직접 인사할 기회를 놓쳤으므로, 바로 다음날인 11월 1일에 편지를 보내 산동에서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해로를 물어 조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표명하였다. 탕상현의 경우에는 10월 28일에 이기지 일행이 북당을 방문하자 조선에 천주당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더욱 적극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했다.

이기지 일행과 서양 선교사들의 긴밀한 대화는 천주교를 조선으로 포교하는 데로까지 급진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이기지가 여행에서 그들과 쌓은 우의는 그 이후의 어떤 여행자들에 비해 진전된 것이었다.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초의 여행자료들에서는 천주당 선교사들과 조선의 여행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접촉양상과 상호간 긍정적 예우를 이기지의 여행록에서만 구체적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서양 사람은 끝내 나와 보는 일이 없더니, 돌아올 때에 천주 위하는 집에서 무슨 經 읽는 소리가 나거늘 문을 열어 보니, 아까 보던 冠과 옷을 입고 북벽 밑으로 돌아다니며 무슨 소리 하니, 키 작고 얼굴이 검으며 인물이 매우 모질어 뵈더라. 성은 탕개라 하고 이름은 기록치 못하며, 근래는 우리나라 사람이

서안문 밖의 땅을 하사받아 세워진 것이며, 1701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1703년에 완공되었다. 1723년에는 라자리스트회원 페들리니에 의해 서직문 대로에 서당이 건립되었다.

⁶ 이기지의 여행이 있는 지 12년 뒤인 1732년 7월에 이의현은 정사의 자격으로 여행 길에 오르며, 그 기록을 <임자여행잡지>로 남겼다. 이의현은 60세가 된 비은을 만나 차를 대접 받았다고 서술하였다. 이의현은 천주교에 대해서는 이기지보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陶谷集] 권 30 <임자여행잡지>, “ 往見天主堂。堂卽西洋國人所創也。西洋之道。以事天爲主。不但與儒道背異。亦斥仙佛二道。自以爲高。康熙甚惑之。象天上。作是廟。中間毀壞。雍正又新創之。在所住數十武。不勞歷覽。故往賞之。入門。便覺丹碧眩耀。目難定視。既是象天上者。故其高幾摩星漢。其畫日月星辰固也。壁上多畫陰鬼。有同禪房十王殿。見之。幽闇無陽明氣象。可怪也。守直人費姓者。西洋國人也。出見。持茶以待之。年今六十。碧眼高鼻。鬚髯屈盤。披髮圓冠。闊袖長衣。問其國距北京幾里。答曰。海路爲九萬里。陸路五六萬里。與大鼻獐子地界相接云”)

이곳에 가는 일이 없는지라, 우리나라 사람이 이르자 지키는 자가 묻기를, ‘ 이곳에 다님을 귀국에서 금한다 하더니 어찌 왔느냐?’ 하니, 누가 전하는 말인지 모르되, 극히 괴이하더라. 공자(孔子)가 가라사대, ‘ 말이 충성되고 미더우며 행실이 도탑고 공경하면 비록 蠻貊 지방이라도 가히 가리라.’ 하시고, 柳下惠가 이르되, ‘ 저는 저요 나는 나니 제가 어찌 내게 더러우리오.’ 하니, 천주당을 구경 앎음이 또한 괴이한 의사라.

- 서유문 <무오연행록>, 1799년 9월 25일

정양문(正陽門) 밖 길에 어떤 사람이 머리를 풀어뜨리고 맨발로 다니는데 수염이 파랗고 기골이 준수하며 기운이 팔팔하여 빈곤하거나 걱정스런 거동이 없었다. 손에는 작은 버드나무 광주리를 들고 가게를 차례차례 지나며 문간을 바라보고 한번 소리치자, 사람들이 다투어 돈을 던져 주되 오히려 뒤질까 걱정하였다. 가는 곳마다 분분하여 잠시 동안에 광주리를 가득 채웠다. 그는 서방 사람인 듯한데 사람들 역시 재물 상통하는 풍속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어 어떤 방을 지나다가 붓으로 써서 물으니, 매우 장대하고 수염이 많은 오랑캐가 의자에 기대앉아, “ 강보록(康保錄)이라 자칭하고 관에 있는 지 8년이며, 나이는 63세인데 그 나라는 2만 8천리나 되며, 2년 후에 귀국하는데 몇 해가 걸려야 비로소 도착한다.” 하였다. 그 나라의 사방 국경을 물었더니, 대답이, “ 남쪽은 중국과 이웃하고, 동쪽 경계는 일본과 큰 바다인데 빙해(氷海)이며, 북쪽 경계는 서양이고, 서쪽 경계는 회회(回回)입니다.” 하였다. 지도를 가지고 상고하여 보면, 아라사는 사막 밖 아주 변방에 있어 천지의 서북 모퉁이 정건해방(正乾亥方 정서북 방향)에 있었으니, 이 오랑캐의 말은 전혀 방향을 모르는 것이다.

- 필자 미상, <부연일기> 1828년 6월

<무오연행록>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연행자가 서양 선교사를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은 그저 과거에나 있었음직한 일일 뿐이다. 서로 가까워서 만날 일이 없다 보니 그저 표면적으로 “ 키 작고 얼굴이 검으며 인물이 매우 모질어” 보인다고 하여 인물의 외양만 평가할 뿐이며, 선교사들 또한 조선에서 천주교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신들의 천주당 방문마저 마뜩찮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 사신과 서양 선교사의 상호 오해의 간극이 앞서 살펴본 <을병연행록>에서보다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가지의 연행으로부터 백여 년이 지난 뒤의 기록인 <부연일기>에서도 이가지가 천주당을 방문하고 선교사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새로움과 신비로움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작가는 선교사의 탁발 행위를 이상한 풍습으로 묘사하고 서양 선교사를 오랑캐로 간주함으로써 서양인 선교사가 가치를 공유하기에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진산사건(1791)이나 신유사옥(1801) 등의 소용돌이가 18세기 말 19세기 초 조선 사람들이 천주학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이 연행록 작가의 인식의 지평에까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무오연행록>이나 <부연일기>에 나타난 천주학의 체험 내용은 그보다 한 세기 정도 앞선 <일암연기>에 비해 뒤 처져 피상적인 편견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⁷

<참고문헌>

김창업, <노가재연행일기> [국역 연행록선집] IV(1976), 민족문화추진회.
서유문, <무오연행록> [국역 연행록 선집] VI(1976), 민족문화추진회.
이기지, [일암연기], 필사본 5권 5책, 한국은행 소장.
이의현, <임자연행잡지> [국역 연행록선집] V(1976), 민족문화추진회.
홍대용, [을병연행록](1997), 소재영 외 주해, 태학사.
홍대용, [산해관에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2002), 김태준·박성순 옮김.
홍대용, <연기> [국역 답헌서] IV(1974), 민족문화추진회.

강동엽(1994), <18세기를 전후한 조선조 문학작품에 나타난 문명의식>, [연민학지] 2, 연민학회.
김아리(1999),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김용현(1995), <서양 과학에 대한 홍대용의 이해와 그 철학적 기반>, [철학] 43, 한국철학회.
김현미(2002), <18세기 전반 연행의 사적 흐름과 연행록의 작자층 시고>,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노대환(1997), <조선후기 서학유입과 서기수용론>, [진단학보] 83, 진단학회.
송영배(2004), <마테오 리치의 서학과 한국 실학의 현대적 의미>, [대동문화연구] 4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신익철(2005), <이기지의 ‘일암연기’와 서학 접촉 양상>, [동방한문학] 29, 동방한문학회.
원재연(2003), [서세동점과 조선왕조의 대응], 한들출판사.
_____ (2003), <조선시대 학자들의 서양인식>, [대구사학] 73, 대구사학회.

⁷ 영조 20년(1744년, 건륭 9)의 [실록] 기사를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기지가 만났던 서양 선교사 대진현의 천문학적 능력이 조선에서 적극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15일, “관상감에서 아뢰기를, ‘칠정력(七政曆) 가운데 자기(紫氣)·일요(一曜)를 청나라[彼中]에서는 임술년부터 비로소 첨입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절일(節日)의 사행(使行) 때 본감(本監)의 관원 안국빈(安國賓)을 역관(譯官) 변중화(卞中和)·김재현(金在鉉)과 동행시켜 흠천감(欽天監)의 관원인 대진현(戴進賢)·하국신(何國宸)을 통하여 자기의 추보법(推步法)·좌향법(坐向法)·연길법(涓吉法)과 교식(交食) 등 신법(新法) 가운데 미진했던 조목을 빠짐없이 배워 가지고 오게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역관(歷官)으로 하여금 기왕의 것을 추구하게 하였더니 대부분 꼭 들어맞았으니, 오는 을축년부터 첨입시키게 하소서. 시헌력(時憲曆) 가운데 좌향을 이정하여 진상하고 반행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배워 가지고 온 역관(曆官)에게는 혜조(該曹)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논상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율게 여겼다. 뒤에 이조의 복계(覆啓)로 인하여 아울러 가자(加資)하게 하였다.; 7월 3일, “관상감에서 아뢰기를, ‘방서(方書) 가운데 [태을통종(太乙統宗)]·[도금가(淘金歌)]와 의기(儀器) 가운데 대천리경(大天里鏡)은 모두 역가(曆家)에게 긴요한 것인데 본감(本監)의 관원 김태서(金兌瑞)가 많은 사재를 들여 간신히 사가지고 왔으며, 또 서양인 대진현(戴進賢)과 주법(籌法)에 대해 문의 논란하여 그 방법을 다 배워 가지고 왔으니, 마땅히 가자(加資)하여 뒷사람을 격려 권면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율허하였다.)